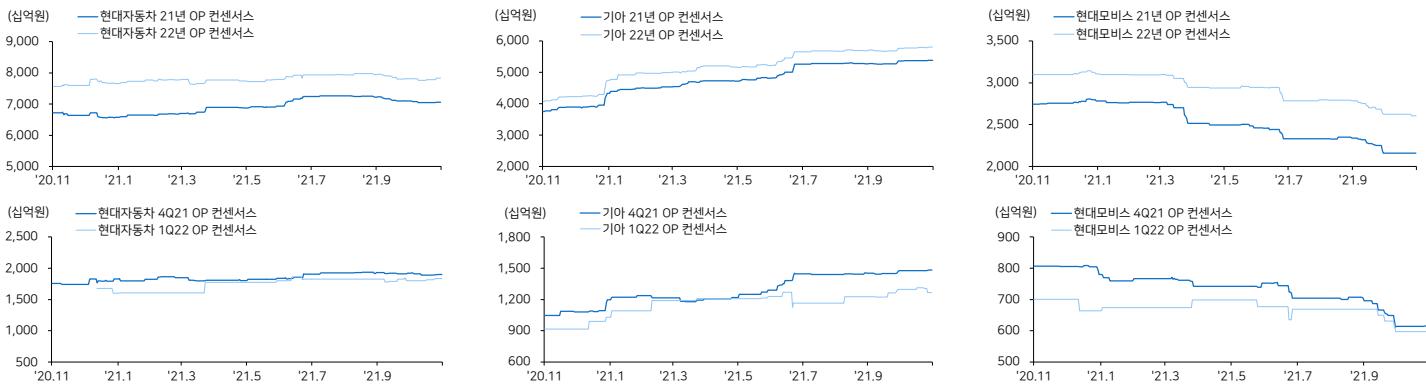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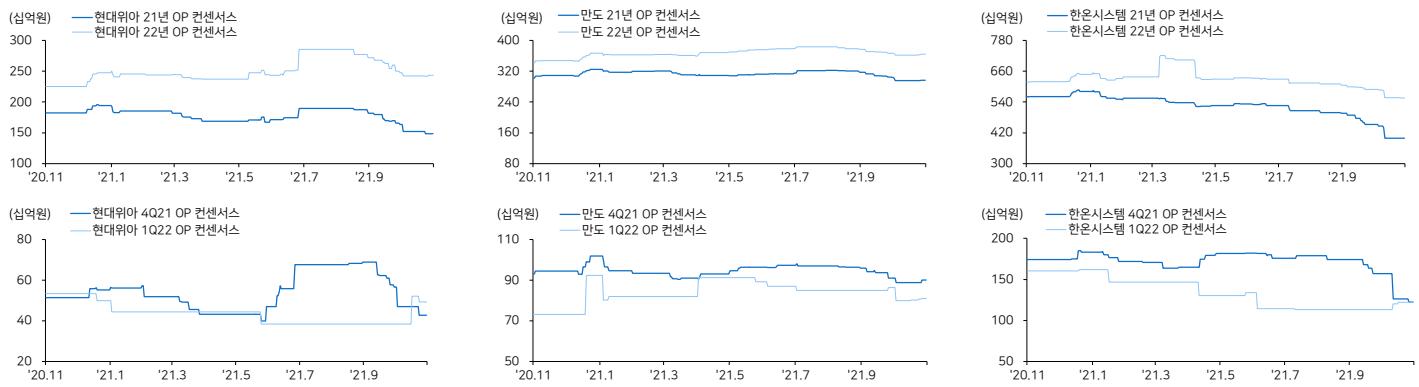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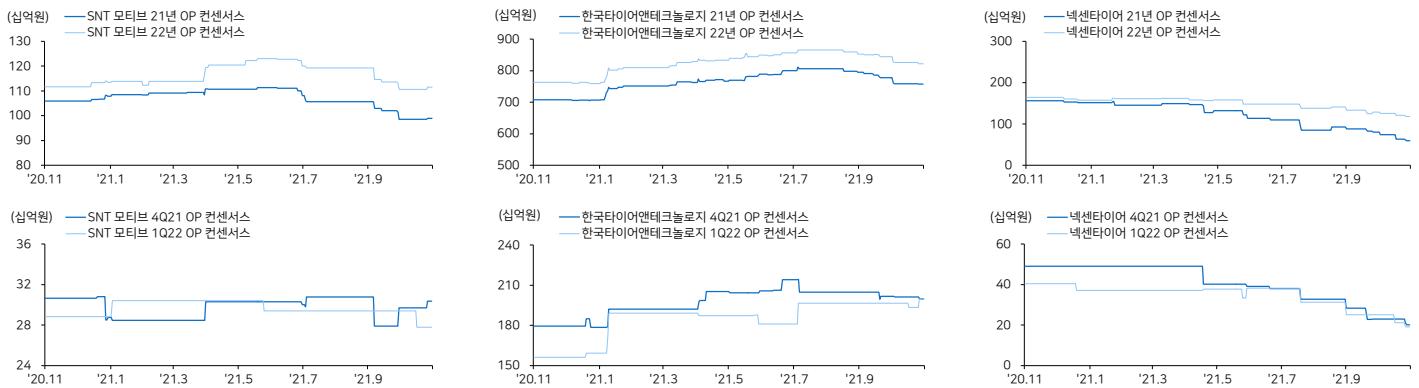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美판매 감소…제네시스로 실적 방어 (뉴스1)

현대차·기아의 11월 미국 판매 20%, 5% 각각 감소함.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가 435%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그룹 실적을 방어. 11월 자동차 수요가 평균 20% 가량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방했다는 평가.

<https://bit.ly/3nwICra>

애플, 스마트업에 전기차 핵심인력 빼앗겨…애플카 개발은? (이데일리)

애플 자율주행차 개발 담당 이사 마이클 슈베쿠치가 전기항공기 스타트업인 아처 애비에이션(아처)으로 영입됨. 슈베쿠치는 테슬라 파트너로 개인 책임자로 근무하다 '19년 애플로 영입되었었음. 애플카 핵심 인력이 달달아 이탈하는 모습.

<https://bit.ly/3Gcuqrw>

Amazon Announces 'AWS IoT FleetWise', a New Platform to Help Automakers (FutureCar)

AWS는 'AWS IoT FleetWise'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클라우드 전송 가능한 서비스를 발표. OEM은 이를 이용해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구성하고 클라우드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표준화할 수 있음.

<https://bit.ly/31oQwrV>

Daimler supervisory board signs off \$68B investment plan for Mercedes (Auto News)

다임러는 '22~'26년 메르세데스-벤츠의 600억 유로 규모의 전기화, 디지털화 및 자동 주행에 중점을 둔 투자 계획을 승인함. 차량 순수익 증가, 직접 판매 모델 구현이 이 전략의 일부이며, 배터리 비용 감소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

<https://bit.ly/3lvFyYh>

현대차 '인도→미국' 또 추월…印 임시(?) 최대 시장 (THE GURU)

지난달 현대차 인도 판매(46,910대)가 미국(43,566대)을 추월하여 단일 세계 최대 시장으로 등극. 지난 1월에도 인도가 미국을 추월한 바 있음. 인도 주력모델이 비교적 반도체 칩이 덜 사용되는 수준. 차별점은 자율주행과 OS에 주력한 SW 역량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https://bit.ly/3plWH8c>

中 '전기차 만행' 제천 사오평…주가 폐쇄질주 (한국경제)

중국 전기차업체 사오평이 3분기 들어 중국 업체들 중 인도랑 1위에 올라섬. 3분기 25,666대를 인도했는데, 이는 리상(25,116대)과 니오파(24,439대)를 앞지르는 수준. 차별점은 자율주행과 OS에 주력한 SW 역량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https://bit.ly/3EKt3Se>

Tesla asks US Govt. to waive tariffs on graphite from China, says it can't get it elsewhere (electrek)

테슬라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흑연에 대한 관세를 줄여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의 흑연을 구할 수 없다는 의견. 테슬라는 4680 배터리셀 양극재로 흑연을 사용.

<https://bit.ly/3xVgqzh>

GM extends EV Chevrolet Bolt production halt to late January (Reuters)

지난 8월 볼트 14만대 대량 리콜한 GM이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이후. 생산 중단을 1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또한 GM은 지난 목요일 리콜과 관련하여 '배터리 모듈 교체에 지속해서 접종할 것'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2Z0ycrr>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